



건강관리과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군산 경암·삼학동에 '치매안심마을'

노인인구·치매등록 많은지역 선정 보건서비스 제공, 인식개선 등 실시

영내 올해 경암동과 삼학동으로 확대 운영된 것.

군산시 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어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 선정 후 치매친화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는 경암동은 부향하나로 아파트, 삼학동은 주공아파트를 거점으로 하여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한다.

올해 보건소가 치매안심마을을 위해 선정한 지역은 지역보건 의료취약 지구이면서 노인인구와 치매등록 인구가 많은 경암동과 삼학동이다.

보건소는 선정된 마을에 보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실무자 간담회와 설명회,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양성교육,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치매안심마을 협약식과 현판식, 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안심창의학교, 메모리데이캠페인,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나은2동 주공4단지아파트가 성공적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운

/군산=봉채영 기자

전북-군산-전북신보

조선·GM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공장 재가동·업종변환 자금 등 총 100억 규모, 업체당 최대 1억

전라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경영 악화일로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공장 가동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와 올 4월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3일 제363회 임시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에서 전북신보 출연동의안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도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은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의 잇따른 가동중단으로 협력기업들이 힘든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풍족한 자금은 아니나 최소한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만큼 협력기업들의 공장 재가동과 업종변환 등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북신보가 접수·심사, 대출 등을 일련 과정을 담당하고, 생산 설비를 갖춘 조선·자동차 기자재 및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신보에서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전북신보의 기(·) 보증 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기간을 폭넓게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등 지원 결정을 하였다. 3.8% 내외의 금리로 지원되며 이자차액에 대해서 2.5%를 도

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업체가 부담할 금리는 1.3%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금번 추가지원에 대해서 해당 협력업체가 다수인 만큼 전북신보 출연금에 대해서 군산시도 일정금액(9억원 정도)을 분담한다.

일자리경제국 나석훈 국장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추가지원 시기가 늦어질 경우 협력기업 경영환경 악화 및 지역경기 둔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협력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관 군산조선업협회장은 "협력기업들의 한도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거래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긴급자금 지원으로 우리 협력기업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면서, "추가 자금으로 기업의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 북구, 주민참여 특별기획전 개최

광주시 북구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재)광주비엔날레 등 6개 기관이 맺은 '중외공민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술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민 솜씨자랑'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기획전에는 북구 평생학습 특화사업 '인생배움터 무릎학교' 9개 캠퍼스와 용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4월 중외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작품으로는 유화, 퀼트, 자수, 손뜨개, 도자기, 흙패션 소품 등 그림과 다양한 생활 공예품 375점을 전시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장성호 경관 보존위한 환경정화 '맞손'

장성군-상무대-해병전우회

장성군과 상무대 육군포병학교·육군공병학교, 장성군 해병대전우회가 '장성호'의 아름다운 수변길을 지키기 위한 '장성호 환경정화 활동'에 뜻을 모았다.



장성호 환경정화활동.

'장성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인공호수로, 장성읍과 북이면, 북하면에 걸쳐있다. 최대 수면 면적은 68.9㎢, 총저수용량은 1만380만㎥에 달할 정도로 넓다.

7km 지점을 연결한 '출렁다리'는 호수협곡을 가로지르는 아찔한 재미와 함께 다리 가운데서 바라보는 장성호의 풍광으로 장성호 수변길의 또 다른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장성호는 힐링과 추억을 선사하는 수변길과 출렁다리가 조성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군이 2016년부터 조성한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길로, 호숫가에 조성된 1.23km 길이의 데크길과 자연 지형 그대로의 숲길로 산과 호수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장성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장성군, 상무대(육군포병학교, 육군공병학교), 해병대전우회는 수변의 길이만 40여km에 이르는 넓은 장성호를 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환경정

화 활동을 펼쳐 수려한 장성호의 경관을 보존하고 농번기철 농업용수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정화활동은 교량가설단정 3대, 바지선 3대를 이용해 진행된다. 군장병과 해병대전우회가 교량가설단정에 탑승하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교량가설단정에 연결된 바지선에 수거물을 옮긴 후 조정경기장 입구에 쓰레기를 모아 처리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車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 400건 접수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첫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에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무려 400여건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접수된 명칭에는 광주형 일자리, 상생 등의 의미를 담은 제안들이 많았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및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두 달간 합작법인 명칭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합작법인 명칭 공모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내포돼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명칭 공모가 시작된 이후 13일 현재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단 모집

7월 말 캄보디아·라오스 등 방문 15개 파견기업에 항공료 등 지원

전라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커지면서 미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남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시장이다.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미얀마 양곤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가 발굴한 현지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펼치게 된다.

시장개척단 참가 자격은 전남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자사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 가진 업체다. 또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3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6.7% 이상으로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구매력은 높아지고 민간 소비시장

바이어 발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 이뤄지고, 참가기업은 발굴된 바이어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사전 접촉을 통해 상담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번에 파견할 시장개척단은 15개 기업 내외로 구성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항공료 50%(최대 100만 원),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 기업은 잔여 항공료와 숙박비만 부담하면 된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척활동 지역은 동남아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곳인 만큼 바이어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남지역 수출기업이 많이 신청해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질 / 19:34

5월 15일 (수)
음력 : 4월 11일

수도권 날씨 **28~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9/28, 동두천 11/28, 백령도 10/18, 파주 10/27, 가평 10/28, 서울 15/28, 양평 12/29, 인천 14/24, 수원 14/28, 용인 14/28, 평택 13/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